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 받는 기쁨 : 학내 성폭력에 관심을 갖는 연세인 누구나
우 보내는 즐거움 : 여/성/주/의 제 10 총여학생회(준),
연세학생연대회의, 사회대 여학우 모임 Beyond,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 법대 여학생회, 법대 동쪽
우 보내는 날짜 : 1997/11/27/목

i. 들어가며..

현재 학내(여성의 일상이 성폭력의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학내 성폭력, 특히 교수-학생 간의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려한다)에는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학내 성폭력은 없다. 대학은 성역이다' 라는 순진한 발상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성폭력은 있다' 고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견들을 접할 수 밖에 없다.

기독교 보수주의에 의한 왜곡된 성문화·성도덕의 잘못된 영향으로 부터 여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연세제일주의에 의한 학교의 명예차원의 문제해결.....순진한 명예남성들의 '앗!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

사실, 성폭력이 공론화된 것 자체가 성폭력의 증가로 읽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침묵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가해자 중심의 음란한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주의적으로 성폭력을 말하는 것의 시작일 뿐이다.

ii. 간단한 사건 개요

자보에 게재된 바와 같이 「현대인과 기독교」 교양수업에서 김균진교수는 매시간마다 여성을 대상화하고 비화시키는 성적폭언을 일삼았다.(자세한 것은 김균진 어록을 참고하세요)이에 여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을 매우 불편해 했다. 음란성이 진보성으로 읽혀지는 포르노 등의 표현물의 논리와 유사하게 김교수는 신학교수로서의 성적인 자유로움으로 미화시켜 여성을 비화시키는 성희롱을 했다한다. (이외에도 신과대 전공수업시간에는 여학생들에게 커피를 타오라는 등의 명령을 한다고 한다)

김균진 교수의 성희롱에 대해 여성문화포럼의 자보가 1차로 불고, 그후로 몇일 뒤인 11월 13일 여성주의 선본 명의로 위의 내용이 게시되었다. 이후 학생처와 김균진 교수의 조교로부터 몇 차례의 회유가 있었고, 자보를 본 김균진 교수는 수업시간에 자보내용 자체를 회화화시켜버리고 자신을 변명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또 학교 측에서도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사실 교수에 의한 성희롱은 비밀비재했었다. '여학생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나 남근적·포르노적 동상들에 기반한 성적 언설들을 즐거운 농담이라고 떠벌거리는 것들이나.... 이미 많은 성폭력들에 의해 전의를 상실해 여학생들은 그런 말들에 반론을 제기하기 지쳐버렸고, 설령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학점'을 무기로 하는 교수의 막강한 권력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iii. 학내 성폭력의 특수성

대학은 '교육 공간'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는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내 성폭력은 일반적인 남녀의 권력 관계뿐 아니라 교수-학생, 선배-후배 등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권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이러한 권력들과 맞물려 성폭력의 피해를 증폭시키고 해결 또한 어렵게 만든다. 즉 교수는 학생의 학점을 관리하고 학위수여여부를 결정하며 학생들의 진로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선배는 후배를 '귀여워' 한다는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성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교수 사건에 보여지듯이 교수-학생의 성폭력은 학생들이 학교 행정이나 강의내용, 강의방식 등에 얼마만큼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며, 여학생의 경우 가부장제 사회뿐 아니라 그런 지배이데올로기를 답습하는 대학내에서, 즉 교육에서 또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내 성폭력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iv. 우리의 입장

이 사건은 김교수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돌릴 수 없고/ 돌려서도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신학과 교수'가 '비도덕적·비윤리적' 차원에서 '성'을 이야기했고, 이것이 성적 저속함의 문제나 도덕성의 맥락으로 읽혀지게 될 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이 남녀의 권력관계의 본질을 간과한 채 일부의 질이 나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교수-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무시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관계로 순진무구하게 미화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성폭력의 문제를 권력이 아닌 도덕성의 문제, 남녀계급이 아닌 개인들간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도 김교수 개인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몇해전 북한 정치사상을 강의했던 주문형이라는 인간도 수업시간에서 공공연한 성희롱을 하다가 학교측에 의해 조용히 잘린 적이 있었다. 학교측은 연세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성희롱을 은폐시키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은밀하게 해결해낸다. 물론 그런 인간이 수업을 맡지 못하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는 하나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교수-학생 사이의 성희롱에 대한 담론을 묵과시키버리고 더 이상 학생들이 개입할 여지를 막아내고 있다.

v.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르는 변수들

일단 김교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소한 교수의 개인적 사과문을 게시하는 정도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된다.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김교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김교수의 신과대 교수사이에서의 영향력의 문제인데 김교수는 소수파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 신학계 내부에서 나름대로(?) 진보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대책위의 활동이 교수들의 알력다툼에 의해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의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전체 학내의 교수-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문제제기를 하려 한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또 다른 변수는 '또 하나의' 대책위의 구성이다. 아직 그런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학생들 사이에서 다른 식의 논리와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은 교수-학생, 남-녀의 권력관계가 빚어낸 명백한 교수-학생 사이의 성희롱(성폭력)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자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 현실적인 차원에서 김교수의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
3. 교수-학생 등의 일련의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시키고 더 나아가 학칙제정을 요구하는 것.

우 11월 26일 준비모임결과와 이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차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안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11월 30일 일요일 2시에 만나기로 했고,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유된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김교수를 만날 것을 임시로 정해보았습니다.

‘하얀 기억 속의 너’라는 소설(무지무지 감동깊게 읽었다고 함..) 얘기하면서,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자기를 물심 양면 도와준 한 남자앞에서 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날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는 낄낄대며, 그야말로 낄낄대며 ‘정말 그런 떡이 어디있습니까, 안그래요 상대남학생들?(이 교수는 이상하게 상대 남학생들을 찾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군요) 그야말로 눈 앞의 떡 아십니까?’...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게도 진정으로 우러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교수의 말, ‘예, 저는 이 남자를 보며 정말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느꼈습니다....’

10/28 수업에서..

여학생들 멋이나 내고 시집이나 잘 갈 궁리 하지마세요.. 이대 학생들 보면 철학, 신학 박사가 다수인데 연대 여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뻔뻔질나게 화장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나 꼬셔볼까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10/30 수업에서

우리들은 신사도를 지켜야 합니다. 문을 드나들 때도 여자들에게 양보를 해야 하고, 대다수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막 앞질러서 들어가 버립니다. 저도 사실을 좀 그런데 그런 무례한 행위는 여자의 생명을 침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여자들 먼저 들여보내고 여자 때려서도 안되고 늘 여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정규 대학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그런 행위를 아니하는데 많은 남자들이 아직도 무식하게...어찌구 저찌구..

11/4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나이들어서 기능은 있지만 힘이 없어지면, 집에 있는 여자들 뻔날 생각하게 되겠어요? (도중에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한여학생에게 - 시집갈 때도 그렇게 늦을래?) 바람필 궁리나 하고..... 여자 때리지 마세요, 어차피 남편이 약값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참 여자한테 맞는 남자도 있지요, 얼마나 병신이면 맞고 삽니까. 안그래요 상대 남학생들? 내가 요즘 ‘야인’이라는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소설에 나오는 깡패들이 여자를 강간하는 장면에서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6

정육에 불타서 참을 수 없을 땐 한뼘처럼 되지..안그래요 여기 남학생들,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그래요,(정말 구역질나는, 예의 낄낄대는 웃음과 함께) 내가 야한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긴 매번 나에게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정육이 충족되고 나면 넌 남이라는 식으로 싹 돌아 누워 잠이 드는 게 보통입니다. 사실 매일 먹는 반찬 지겹기도 하지 않겠어요?

11/11

남자들 출장가고 그러면 다들 뻔뻔하게 마련이지요, 사실 출장간다면 남자 동료들이 나들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학생들, 남편이 출장간다면 괴로워해야 합니다.(등등 역시 개소리로 시작하는 강의.....적기도 싫어서 관뒀습니다.)

제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 근무하는데 새로 고졸 여사원이 들어오면 꼭 따먹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성을 아는 눈빛은 어둡고 음침합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군대 갔다온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사실 군대 갔다오면 다 사창가에 가보는거 아닙니까. 안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난 척 보면 성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기록을 했을때는 제가 쓴 말도 많았는데, 일부러 다 빼고 그 교수의 말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교수가 했다고 믿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교수는 사실 여자를 무시한다기보다는 변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교수가 말하길 어떤 여학생이 강의 평가서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은 성폭행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썼더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말더군요. 여기 적힌 말들은 저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교수의 강의(라고 부를수 있다면)내용이고요, 될 수 있는한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라도 성, 주로 성행위에 관한 얘기를 안하는 날이 없고, 읽는다는 소설책도 맨날 그런것이고, 그 친구라는 사람들도 맨날 그렇습니다.(유유상종이라고나 할까..) 정말,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준도 못되는, 그야말로 개새끼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이젠 화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수가 눈물나게 가련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많이 얘기되는 문제들, 이를테면 모든 말이 남학생 대상이라는거, 여자는 당연히 시집가서 '안사람'이 되는 거 등등은 다적으려면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뺐고요.(참, 내가 강의 필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올 A+이었을텐데...) 저역시 그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성주의 선본에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열심히 하시길!!!

아참, 이 모든 얘기들은 화요일 1교시, 목요일 2,3 교시에 과학관 111호실에 가면 생생한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1/13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제의 강의의 맥락은 듣지 않고 그 사소한 것에서 이야기하고 문제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뺏는거?)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까. (웃음).
청각이 좋았고 중요한 여학생들 때리는 얘기는... 그도 이가 좌우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학생들이 한층더 생각하는 것은 저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고 제가 표현을 사용하다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건데..
저의 강의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제가 한 어떤 얘기를 뺏아서 이를 비난하는 것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강의시간에 성폭행, 성폭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담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왔다면 사라진 하곤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수업을대조이 강의를 맡게 하곤 싶습니다...
등등.. 열심히 변명(?)은 하시고 있네요. 자본을 보고 농성을 받으셨나? ^{상대여불용} 자본을 쓴 저의 형제는 줄리에게
교수의 강의 맥락도 이해 못하면서 단편적인 얘지만 겁마녀 교수의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군요